

결 과 보 고 서

요약문

사업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업명	비서구적(non-Western), 비판적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론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업기간	2021.3.1.~2022.1.31	사업비	

1. 사업 목적

- 국제정치와 갈등,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서구 중심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한반도 및 아시아에 적합한 시각 추구
- 비서구의 비판적 관점에서 기존의 평화연구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검토.
-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를 비서구의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론에 대한 기존 논의 비판 및 창조적 대안을 모색함.

2. 사업 내용

- 국제정치학과 평화연구에서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지구국제정치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단을 구성
- 동북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개별 지역 및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연구들을 긴밀하게 비교, 연구

3. 사업 성과

- 구미 편향적 평화연구 극복 및 비판적 평화연구의 관점 개척
- 연구네트워크의 확장 및 대안적 지구 지식망 형성에 일조.
-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본 전제들을 재고, 대안적 정책 비전을 제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I.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비서구적(non-Western), 비판적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론
- 기관명: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비서구의 비판적 관점에서 기존의 평화연구를 비판하고 한반도 통일론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이론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평화연구는 국가들 간 전쟁 및 폭력 사용에 대한 연구,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연구 등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조직원리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근대 유럽에서 기원한 소위 “베스트팔렌 주권체제”를 당연시하여 연구되는 평화연구는 비서구 국가들과 지역의 관점을 주변화하는 이론적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인 평화추구에서도 왜곡을 불러옴.¹⁾
 - 비서구 국가들과 지역은 유럽 기원의 주권국가체제에 맞는 국가건설 및 민족건설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경험해 온 식민지의 경험으로 여전히 탈식민지의 과제를 안고 있음.²⁾

1)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London: Sage, 1996); Charles Webel, Johan Galtung, *Handbook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Routledge (2007); Thomas Matyók, Jessica Senehi, Sean Byrne, *Critical Issue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Theory, Practice, and Pedagogy*. Lexington Books (2011); Oliver P. Richmond. “Reclaiming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08. Vol. 36 No. 3, pp. 439-470; 서보혁.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2015년(여름) 통권 89호, pp. 115-148; 정권구. 평화의 두 가지 개념에 관한 논쟁: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서석사회과학논총* 제4집 1호(통권 제7호) 2011: 39-69 등 참조.

○ 21세기 들어 미국 단극체제가 약화되고 비서구 국가들의 다양한 관점이 학문적으로 이미 상당히 강화되는 가운데 평화연구의 관점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크게 증가함.

- 사회과학 전반은 물론 국제정치학에서 “비서구적 전회(non-Western turn),” “탈식민 전회(post-colonial turn)”에 이어 “지구적 전회(global turn)” 등이 상당히 진행되어 온 바,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한국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한반도에 유용한 평화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³⁾

- 이를 위해 기존의 미국 편향적 사회과학 및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서구의 다양한 학자들과 긴밀한 협동연구를 통해 비서구의 비판적 연구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한국적 관점을 정립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임.⁴⁾

○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를 비서구의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론에 대한 기존 논의 비판 및 창조적 대안을 모색함.

○ 한반도의 통일 논의는 기존의 근대주권국가체제를 전제로 하여 통일된 하나의 근대주권국가를 설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국제정치의 급속한 변화 및 향후 비판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재설계한다면 기존의 통일론에 대한 창조적 비판과 대안이 가능함.

- 현재의 통일론은 하나의 주권국가 수립, 혹은 두 개의 국가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등 근대적 국가개념에 고착되어 있음.

- 그러나 향후 국제정치의 변화로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연합, 21세기형 제

국 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을 규정할 정치거버넌스 형태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음.⁵⁾

- 현재 사회과학과 국제정치학에서 축적되고 있는 지구국제정치학 이론(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새로운 통일론을 제시함.

2. 사업 내용

□ 본 연구는 지구국제정치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단을 구성함.

○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정치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국제관계 및 평화에 대한 현상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임.

- 미국 단극체제 하에서 강대국들 간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저하된 반면 비서구 국가들 간, 국가들 내부의 폭력양상은 증가함.

- 서구의 평화연구 관점에서 보면 냉전기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줄고, 폭력의 규모 역시 줄어들었으며, 소극적 평화를 바탕으로 적극적 평화의 가능성이 증대한 것으로 인식됨.

- 그러나 이는 서구 편향적 평화연구의 관점이며, 유럽 기원의 주권국가체제 자체의 폭력성, 제국성을 비판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연구는 불완전하다고 평가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과 비서구 지역, 그리고 한국 내 국제정치학자들을 연구단으로 구성하여 개별 논문 주제를 정하고 연구성과를 취합함.

□ 개별 지역 및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 평화연구들을 긴밀하게 비교, 연결하여 연구성과를 일관되게 취합함.

○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국제적 연구단은 개별 논문 주제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현재 국제정세, 폭력과 강제, 국제관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평화의

2) Amitav Acharya,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IR) and Regional Worlds: A New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8(2014); E. Kingmar, E. (2020). *Alternatives to the state: Or, why a non-western IR must be a revolutionary science*. *All Azimuth: A Journal of Foreign Policy and Peace*, 9 (2), 149-162; 은용수, '비주류' IR이론과 한국의 국제정치문제. *국제정치논총*, 2016, Vol.56(3), pp.51-88; Charlotte Epstein,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Theory*, 2014, Vol.6(2), pp.294-311; A. G. Hopkins, *Globalisation and Decolonisation*,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03 September 2017, Vol.45(5), pp.729-745; 김경섭, 탈식민주의와 포스트탈식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현대사상*, 2008, Issue 2, pp.107-147 등의 논의 참조.

3) Sanjay Seth, ed. *Postcolon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 Routledge, 2013); Antony Anghie,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colonial and postcolonial realities" *Third World Quarterly*, Vol. 27, No. 5(2006); Márton Demeter, "The World-Systemic Dynamics of Knowledge Production: The Distribution of Transnational Academic Capital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25.1 (2019): 111-44 등 참조.

4) Cullen S. Hendrix, and Jon Vreede, "US Domi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Scholarship in Leading Journal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4.3 (2019): 310-20.

5) 서보혁 (2017).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63), 33-64; 박상경 (2015).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203-228; 강원돈 (2009).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화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1), 107-128; 최양근 (2014). 통일연방국가 연구. *법학논총*, 31, 235-264; 최양근 (2016)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 필요 조칙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7:1, 133-160; 남광규, 2015. 남북한 합의통일의 법적 가능성과 협의적 권력운영의 제도화.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최윤철 (2019).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장기화 원인에 대한 연구. *통일인문학*, 77, 325-361; 강혜석 (2019).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 개의 민족론. *한국정치학회보*, 53(1), 127-155; 김상준 (2018). 코리아 양국체제. *한국사회학*, 52(4), 39-75; 박정원 (2019). 한반도 통일의 국제법적 함의 : 자결권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착안하여. *한양법학*, 30(4) 등의 다양한 통일론 참조.

가능성을 모색함.

- 본 연구 참여자들은 수 차례의 연구 주제 상호 토론 및 조직화를 시도하고, 이후 웨비나를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연구자들, 한반도 국제관계연구자들, 해외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연구성과를 발전시킴.

□ **비판적인 국제적 차원의 평화연구 및 국제정치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및 통일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추출함.**

- 식민지 시대를 공유하고 탈식민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 지역의 역사와 현실은 한국에 대한 함의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역시 식민지를 거치고 여전히 한일 역사문제로 대변되는 탈식민의 과제, 그리고 분단과 남북 군사대립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비서구, 비판적 국제정치학의 연구성과는 한반도의 역사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및 통일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이를 웨비나를 통해 토론하여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사업 추진 내용
- 국제정치학과 평화연구에서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지구국제정치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단을 구성
- 동북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개별 지역 및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 평화연구들을 긴밀하게 비교, 연결하여 연구성과를 비교, 취합함.
- 각 국가별 국제정치이론, 평화 및 안보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이후, 한반도의 차원에서 본 평화론과 통일론에 주는 함의 고찰.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1년 2월-10월	연구 주제 조율 및 초고 작성
2021년 11월	통일평화연구원 중간 발표회 진행개별
2021년 12월-2022년 1월	연구 완료 및 제출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국제문제연구소	02-880-9004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안두환	서울대학교	교수	
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Charalampos Efstathopoulos	Aberystwyth University	Lecturer	
Thuy T. Do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Professor	
Cheng-Chwee Kuik	University of Malaysia	Professor	
I Gede Wahyu Wicaksana	Universitas Airlangga	Lecturer	
Peter Marcus Kristensen	University of Copenhagen	Professor	

Chaesung Ch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cschun215@gmail.com

Charalampos Efstathopoulos. Lecturer in International Politics; Director of Graduate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Aberystwyth University, UK. che15@aber.ac.uk

Cheng-Chwee Kuik. Head and Associate Professor, Centre for Asian Studies,

Institute of Malaysian and International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cckuik@gmail.com

Doohwan Ah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dhwahn@snu.ac.kr

I Gede Wahyu Wicaksana. Senior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as Airlangga, Indonesia. Email: wahyu.wicaksana@gmail.com

Peter Marcus Kristense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Email: pmk@ifs.ku.dk

Thuy T. Do. Vice Dean of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Email: dothuy@dav.edu.vn

Yong-Soo Eun.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Korea. Email: ysir@hanyang.ac.kr

중간 발표 기조연설

Young-Sun Ha. Chairman of East Asia Institute;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ysha@eai.or.kr

Qin Yaqing.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of Shandong University and former president of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China. qinyaqing@sdu.edu.cn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 2021년 11월 12일 통일평화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연구성과 발표 학술회의를 개최
 - 각 연구자들의 중간 연구 내용 발표
 - Varieties of agency and idea in multiplex world의 세션 1과 Global IR and Asian IR scholarships 제하의 세션 2 진행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영선 교수와 중국국제관계학원 전 총장인 친야칭(Qin Yaqing) 교수의 기조연설 발표 개최
 - 기조연설에서 하영선 교수는 “A New Perspective of Complex Symbiosis for the Study of World Order after the COVID-19” 내용으로 문제제기
 - 친야칭 교수는 “Trans-acculturation: An Approach to Chinese IR theory”의 내용으로 문제 제기
 - 연구참여진은 다음 주제의 연구 중간 성과를 발표

전재성 “Theorizing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ase of inter-Korean relations”
안두환 “English School and the Lessons of History”
은용수 “Global IR and a reflexive stocktaking from Asia”
Charalampos Efsthathopoulos (Aberystwyth University) “The Global South and the Middle Power Concept: The Cases of Brazil and South Africa”
Thuy T. Do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s emergence as a middle power in Asia: unfolding the power-knowledge nexus”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Small-State Agency in Regional Connectivity-Building”
Peter Marcus Kristensen (University of Copenhagen) “Beyond a ‘mor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I Gede Wahyu Wicaksana (Universitas Airlangga) I Gede Wahyu Wicaksana (Universitas Airlangga)

- 2022년 1월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이후 개별적으로 대부분 각 저널에 투고하여 출판 예정임.

□ 최종 결과물 내용

1. 전재성, Theorizing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the offspring of North Korea problem, that is, the uncertain future of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with the former supporting states either disappeared or transformed into non-communist states. The status of a sovereign state in the United Nations since 1991 does not guarantee the future sovereignty of North Korea, because there is a tacit agreement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and the future reunification may be accepted a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thinking of the history of Korea which has existed as a unified country for more than 1,200 years.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will determine crucial aspects of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and futur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This is why not just two Koreas but also surrounding great powers have been highly cautious and reluctant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ow South Korea conceives the nature of North Korea's sovereignty i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future possibility of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roadmap for reunification.

2. 안두환. 영국학과와 역사의 교훈

본 논문의 목표는 연구 대상만 아니라 IR 분야 자체와 연관되어 근래 거세게 일고 있는 역사학적 전환을 주동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영국 국제사회 학파(이후 ES)’의 초기 역사관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장과 전개 방향 그리고 의의를 밝히기 전에 지금까지 국내외 ES의 연구 경향을 간략히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다. 누가 ES에 속하는가 그리고 누가 주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ES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과의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가 미국 록펠러 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59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수년간 직접 꾸려나갔던 ‘영국 국제정치이론 위원회(이후 위원회)’가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위원회는 버터필드에 이어 마틴 와이트(Martin Wight)와 헤들리 불(Hedley Bull)이 차례로 운영을 맡으며 한동안 활발히 활동했으나, 1972년 와이트에 이어 불마저 1985년 사망하면서 해체가 되었다. 이후 미국 행태주의 IR과는 다른 영국적인 특색을 가진 IR에 대한 간헐적인 호소 속에서 스치듯 언급되던 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론으로 구성주의가 인기를 구가하자 한 세대 전에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 ES의 중핵으로 주목받았다.

3. 은용수. Global IR and a reflexive stocktaking from Asia: Toward a broadening of what it means to be “scientific” in Global IR knowledge

This article shows that the problem of “West-centrism”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is synonymous with the problem of the dominance of positivism, a particular version of science that originated in the modern West. How can we open up this double parochialism in IR? The article calls for reflexive solidarity as a way out. This indicates that on-going Global IR projects need to revamp their geography-orientated approaches and instead seek solidarity with other marginalised scholars irrespectiv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or geocultural backgrounds to build wide avenues in which not only positivist (i.e., causal-explanatory) inferences but also normative theorising and ethnographically attuned approaches are all accepted as different but equally scientific ways of knowing in IR. As a useful way of going about this reflexive solidarity, this article suggests autobiography.

4. I Gede Wahyu Wicaksana. ASEAN in Indonesian IR Scholarship: Advancing Open-ended Analytic Eclecticism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or Global IR is rising around the world. IR scholars from various regions develop their unique 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s on world politics.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IR from Southeast Asia. The author presents a case study of ASEAN in Indonesian IR scholarship. The argument is that the Indonesian ASEAN scholarship consists of three conceptual components: foreign policy, regionalism, and strategic culture. Although having a different emphasis, all three are interlinked to one another in invigorating their explanatory power. Recent developments have shown contending positions among Indonesian scholars regarding the continuing relevance and significance of ASEAN for supporting Indonesia's international activism. The prolonged crisis caused by COVID-19, which affected ASEAN's multilateralism projects, further sharpens the disagreements on ASEAN in the Indonesian IR community. Reflecting on this domestic diversity in the views on ASEAN, the author argues that open-ended analytic eclecticism will be a prospective approach to studying ASEA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Global IR.

5. Peter Marcus Kristensen and Arlene B. Tickner. Beyond a ‘mor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ot-so-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iscipline has become a central problematique as scholars call for a more global or globalized IR. What contemporary debates oftentimes miss is that the project of making IR more international is not new but in fact constitutive of the field. This chapter critically revisits some of the earliest self-conscious and structured debat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the League of Nations affiliated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s (ISC) in the 1920s and 1930s, to argue that IR’s preoccupation with variation in ways of knowing and teaching around the world began almost a century ago. Notwithstanding a sense of exceptionalism that the discipline had to become more ‘international’, the interwar precursors to more recent discussions on the state of IR were also embedded in a Eurocentric framework infused with imperial, colonial and racist assumptions. The chapter concludes by reflecting on what implications this might have for contemporary projects

that survey how IR is done differently around the world with the goal of globalizing and pluralizing the field.

6. Kuik Cheng-Chwee and Wong Yau Duenn. Small-State Agency in Regional Connectivity-Building: Malaysia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KRL

This paper unpacks small-state agency in infrastructure connectivity-building at the regional level, focusing on Malaysia's role, since the mid-1990s, in initiat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idea of the Singapore-Kunming Rail Link (SKRL). In December 1995, Malaysia put forward the SKRL proposal within the context of ASEAN-China cooperation and, in June 1996,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establishing the Special Working Group (SWG) for the SKRL. Since then, the SWG-SKRL has developed and expanded into a ministerial-level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mechanism involving seven ASEAN member states, China, and three multilateral bodies. Although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uneven across countries, the SWGSKRL functions as a planning and coordinating entity to actualize a long-talked-about idea and institutionalize inter-state cooperation. (These developments took place before the term "connectivity" entered the lexicon of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ell before China launched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regional connectivity building is not just about big-power aspirations, but also about small-state agency. Second, ideas matter, and activism matters as much if not more, even though small-state activism necessarily entails its particular limitations. Third, small-state agency in regional connectivity—like agency in other scales and scopes—can be disaggregated into national, subnational, and external processes, the combined dynamics of which reflect the complex intersecting interests, identities, and inspirations within and across boundaries. These dynamics captu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a "multiplex world," as coined by Amitav Acharya: the presence of multi-actor interactions, multi-domain interdependence, multi-level governance, and multifaceted modernities in a

sphere sans hegemony.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long these themes across different aspects of regional connectivity-building to enrich the burgeoning global IR debate.

7. Charalampos Efstathopoulos. The Global South and the Middle Power Concept: The Cases of Brazil and South Africa

Middle power approaches are used extensively in contemporary IR, but the field often remains confined to questions regarding the middle power concept itself, rather than what the middle power concept can bring to the study of IR. The Global IR research agenda brings to the fore this question to enquire whether the middle power concept can remain analytically relevant to the experiences of non-Western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 middle power concept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agency of Southern powers that contributes to Global IR. On the one hand, critics may argue that such contribution is limited or non-existent as the middle power concept is an inherently Western-centric concept that reflects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foreign policy needs of Western states that claim an internationalist and exceptionalist role. On the other hand, the middle power concept has been the vehicle, especially throughout the post Cold-War era, for re-thinking and re-assessing the foreign policy of various non-Western states, as the rich literature on such cases demonstrates.

8. Do Thi Thuy. Vietnam's emergence as a middle power in Asia: unfolding the power-knowledge nexus

With Asia's geopolitical rise, regional IR communities have attempted to become knowledge producers. While this power-knowledge nexus is often observed in the cases of Asian big powers, this study posits that such a linkage can also be applied to lesser powers. As power today is widely diffused to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eyond the great

powers, the power-knowledge nexus should be re-examined to respond to the growing multiplexity of world order and the call for diversity of IR knowledge. Along such line, this paper showcases how Vietnam's growing middle power status has shaped policy and scholarly discourses in the country regarding the course of Vietnam's foreign policy and its burgeoning interest in constructing a Vietnamese School of Diplomacy. This will help enrich the literature on the agency of middle powers in world politics and the prospects for contribution to IR knowledge in peripheral regions like Southeast Asia.

□ 관련분야 기여도

- 본 연구는 평화연구 및 국제정치학, 그리고 한반도 남북관계 연구에 다양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
- 기존의 평화연구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비판하고 비서구 지역의 평화 문제 및 중견국 국가의 외교적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 및 한국의 대외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내용에 기여하였다고 봄.
- 동북아시아 중심의 학자 네트워크를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학자들, 그리고 연구 대상 국가 역시, 아프리카와 남미에 걸쳐 포괄적으로 수행되어 향후 비교연구 및 이론 심화에 공헌하였다고 생각함.
- 중간 발표 과정에서 유튜브 중계 및 사후 시청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분야 일반 시청자들, 특히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교육 및 학문 어젠다 확장 효과를 기할 수 있었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구미 편향적 평화연구 극복 및 비판적 평화연구의 관점 개척
- 한국 평화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서구에서 시작된 평화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서구의 평화연구는 고래로부터 역사가 깊지만 근대 유럽의 주권국가체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전쟁의 극복과 소극적 평화의 연구를 심화해왔음.
 - 그러나 21세기 국제정치 현실은 주권국가 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요성 증가, 내전 등 전형적 전쟁이 아닌 폭력 문제의 중요성 증가, 그리고 비서구 지역의 근대 이전 지역질서 조직원리의 중요성 부활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평화연구 역시 이러한 지구적 변화추세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새로운 관점을 개척하는 선구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⁶⁾

- 연구네트워크의 확장 및 대안적 지구 지식망 형성에 일조
 - 비서구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학계는 미국 편향적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임.⁷⁾
 - 평화연구 및 국제정치 연구의 분야가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 역시 영향력을 확장하려면 대안적, 서구 비판적 지식망 형성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성과를 생산.
-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기본 전제들을 재고하고 대안적 정책 비전을 제시
 - 한반도는 근대적 관점에서 1897년 광무개혁으로 첫 번째 근대주권국가를 이루었지만 제국주의 조직원리가 횡행한 19세기 말 아시아에서 통일주권국가의 꿈은 사라짐.
 - 해방 이후 통일주권국가는 여전히 성립되지 못한 채 국제정치는 이미 탈베스트팔렌, 탈근대, 그리고 다차원적 지구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통일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기대되는 효과임.
- 사업의 적절성
 - 사업 목적에 타당한 예산 계획 및 연구진 조직, 이후 연구 수행 과정에서 타당한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음.
 - 국제적 연구진을 편성하는데 사전 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수 개월

에 걸쳐 진행하여 연구 분장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진행함.

- 사업의 효율성
 - 사업은 연구진들 간 상호 소통 및 역할 분담,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등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음.
 - 그 결과 평화이론, 국제정치이론, 각 지역별 평화 연구, 국가별 평화 관련 외교정책 등 일관된 연구 주제로 상호 소통하여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사업의 영향력
 - 연구는 중간 발표과정 및 향후 출간 과정을 통해 비서구 평화연구 및 한반도에 대한 합의 부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함.
 - 중간 발표 이후 교내외의 시청자 및 여타 연구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상당 수 청취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서구 중심의 사회과학이 주류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현재, 비서구의 시각은 평화연구 및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임.
 - 향후 연구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비서구 평화연구 및 중견국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심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국제적인 연구진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연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됨.
-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연구의 경우 상호 소통 및 연구 분장을 위해 다년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6) 이찬수 외, 『세계평화개념사 : 인류의 평화, 그 거대담론의 역사』 (인간사랑, 2020); 하영선 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이문영, 『폭력이란 무엇인가 : 기원과 구조』 (아카넷, 2015); 서보혁, 이찬수, 2018, 『한국인의 평화사상, 1 : 원효에서 안중근까지』, 인간사랑; 서보혁, 이찬수, 2018, 『한국인의 평화사상, 2 : 유영모에서 김대중까지』, 인간사랑 등의 연구성과 참조.

7) May Darwich, and Juliet Kaarbo, "IR in the Middle East: Foreign Policy Analysis in Theoretical Approaches,"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34.2 (2019); Pedro Emanuel Mendes, The Birth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Social Science: A Compared Analysis Of The Anglo American World And Continental Europe Austral: Brazilian Journal of Strategy & International Relations(2019.) v.8, n.16, Jul./Dec. 2019 | p.19-50; Carmina Yu Untalan, Decentering the Self, Seeing Like the Other: Toward a Postcolonial Approach to Ontological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Volume 14, Issue 1, March(2020), Pages 40-56 등 참조.

□ 향후 계획

- 비서구 국제평화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연구자들과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기여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한반도 평화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여타 지역의 연구,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청취하기 위한 해외연구자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계획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연구 과정에서 평화통일연구원의 적절한 지원과 안내가 이루어져 연구 진행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음.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모든 사업이 같은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연구는 없음.
- 사업 종료 이후 개별 연구자들이 국문, 혹은 영어로 국내외 저널에 대부분 투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성과 자율 지표

- 본 사업은 연구사업으로 사업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논문 게재를 대부분 연구자들이 할 것으로 독려하고 계획하고 있음.